

매체소개서



2014. 현재

www.metroseoul.co.kr

회 사 명 : 주식회사 메트로신문사

대표이사 : 남궁 호

주 소 : 서울시 중구 신문로2가 1-141

창 간 일 : 2002년 5월31일

자 본 금 : 6,034백만원

사업자등록번호 : 206-81-60793

사업영역 : 신문발행업/광고업/출판인쇄업/공연문화



1년 끈 단말기 유통법 '누더기'

핵심인 분리공시 내용 빠져 반쪽짜리 법안 평가
보조금 최대 14만5000원, 6개월마다 조정 가능

한 해의 가장 큰 뉴스 중 하나인 스마트폰 유통법 개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거론되어 왔지만, 결국 반쪽짜리 법안으로 남았다. 특히, 핵심인 분리공시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으로 남았다. 이는 유통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역 고가 녹지공원 조성

환경 보전 2016년 환경
서울역 고가 녹지공원 조성
서울역 고가 녹지공원 조성은 서울역 고가철도 건설로 인해 사라졌던 녹지를 복원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종환 기자 인터뷰 모습. 최 기자는 '스포츠서울' 기자 출신으로, '스포츠서울' 기자 시절부터 '스포츠서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최 기자는 '스포츠서울' 기자 시절부터 '스포츠서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다구 있다

다구 있다. 구멍은 '다구' 단말기는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 전화의 핵심 부품이다. '다구' 단말기는 휴대 전화의 핵심 부품이다.

로 찾아야

로 찾아야. 고가의 스마트폰은 성능이 뛰어나지만, 배터리 수명이 짧아 불편을 겪는다. '로 찾아야'는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이치 최고 200mm 비

이치 최고 200mm 비. 서울지역에서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번 폭우로 인해 서울지역에서 2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유엔 기후정상회의의 현안

유엔 기후정상회의의 현안. 유엔 기후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 많은 정보의 무료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얻으려면 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2001~2005

2001

- 07. (주)메트로서울홀딩스 설립
- 11. Metro International S.A (MISA) 합작사업 MOU 체결

2002

- 05. MISA 와 신문 발행 계약 체결
메트로신문 창간
- 06. 한국ABC협회 가입

2003

- 02. (주)메트로신문사 사명 변경
- 08. 메트로신문 부산지사 설립

2004

- 03. 중앙일보 전략적 제휴
- 07. MISA 지분 투자(5%)

2005

- 06. 양재미디어 CTS 도입
- 09. MISA 지분 투자(24.99%)
- 11. 국내 최초 신문중철(stitching) 실시

2006~2009

2006

- 06. 국내최초 독일월드컵 기간 중 스포츠섹션 특별판형
- 11. 세계 최대 글로벌 신문 기네스 인증

2007

- 05. 청계천 걷기대회 개최
- 12. 송년음악회 개최

2008

- 04. 신문로 사옥 이전
- 05. 창간6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2008 러브스토리 해피투게더'
- 09. 스타 사진전 개최
- 12. 송년음악회 개최

2009

- 03. 정명훈 서울시향 제1회 '희망드림콘서트' 주최
- 05. 가정희망음악회 공연 개최
'러브스토리해피투게더'
- 09. 영화 아바타 프로모션 진행
- 12. 송년음악회 개최

2010~2013

2010

- 03. 종로세무서 - 우수납세업체 표창
- 05. IOS(아이폰) 뉴스 App 서비스
- 08. 제2회 '희망드림콘서트' 주최

2011

- 03. Café Ato 오픈
- 09. 제1회 '희망나눔음악회' 개최
- 10. 제1회 '마당음악회' 개최

2012

- 03. 제2회 '희망나눔음악회' 개최
- 06. 창간 10주년 가족사랑 건강 달리기 대회 개최
- 06. 창간 10주년 기념음악회 예술의 전당 IBK채임버홀
- 10. 뉴미디어국 신설(온라인강화)

2013

- 05. 제3회 '희망나눔음악회' 개최 인터넷신문협회 가입
- 09. 포털사이트 ZUM 모바일 뉴스 제공 구글뉴스스탠드 App 제공 계약
- 12. 송년음악회 개최 온라인 사이트 운영 관리 자체 개발

2014

2014

- 01.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
- 03. 강원도 인제군 '캠핑빌리지 조성' 계약
- 05. 창간 11주년 '힐링음악회' 개최 부산모터쇼 특별판 발행
- 06. 브라질 월드컵 특별판 발행
- 09. 구글뉴스스탠드 베타 서비스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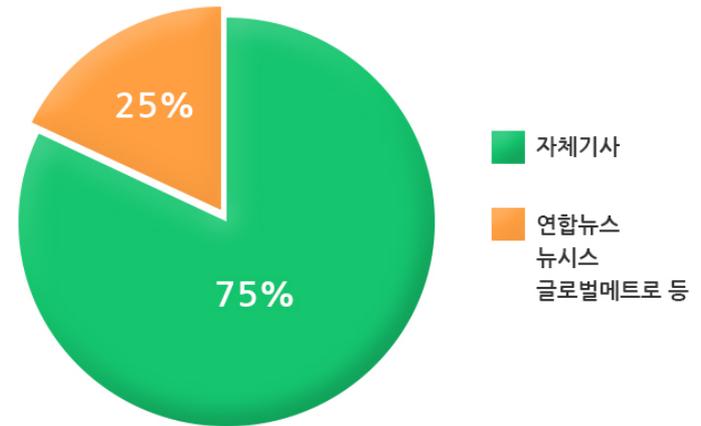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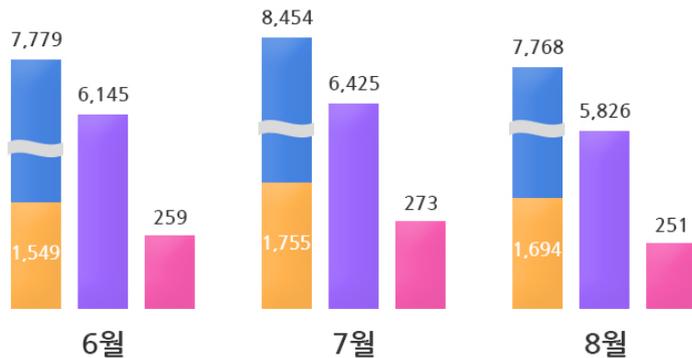
메트로는 편집국, 뉴미디어국, 통합마케팅국
경영기획실 등 80명의 직원이 1년 365일
하루도빠짐없이 독자에게 뉴스를 전달합니다.



I 2014년 6~8월 전체기사 생산량 및 자체기사 비중

월	전체기사량(연예기사량)	자체기사량	1일 평균기사량
6월	7,779(1,549)	6,145	259
7월	8,454(1,755)	6,425	273
8월	7,768(1,694)	5,826	251

■ 전체기사량
 ■ 연예기사량
 ■ 자체기사량
 ■ 1일 평균기사량



세계 최대 무료 종합일간지로서 정치, 경제, 사회, 산업, IT, 라이프, 연예, 스포츠 등 국내 일반뉴스 및 기획취재뉴스와 함께 다른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 27개국 220여 도시에서 활동하는 2000여명의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글로벌메트로'의 최신 이슈 및 트렌드를 독자에게 제공



단종된 서울대 출판부에서 발행하던 '서울대신문'을 인수한 메트로가 2013년 9월 25일 목요일을 마지막으로 '서울대신문'을 폐간하고 '글로벌메트로'를 창간했다. 서울대 출판부에서 발행하던 '서울대신문'을 인수한 메트로가 2013년 9월 25일 목요일을 마지막으로 '서울대신문'을 폐간하고 '글로벌메트로'를 창간했다.

1년 끈 단말기 유통법 '누더기'

핵심인 분리금시 내용 빠져 반쪽짜리 법안 통과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6개월마다 조정기로

1년여 가까이 진행을 거듭했던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2013년 9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핵심인 분리금시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단말기 유통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대신, 단말기 유통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공공채권 발행을 금지하는 등 주요 골자 중 일부가 빠져 있다. 특히 단말기 유통을 위한 공공채권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2012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2013년 9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2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2013년 9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2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2013년 9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2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2013년 9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2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2013년 9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2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2013년 9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2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2013년 9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2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2013년 9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역 고가 노숙자공원 조성

환경 부존 2016년 완료

서울역 고가에 노숙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016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역 고가에는 노숙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016년 완료할 예정이다.

전국 70개 종합지 중 점유율 8위
→ 2013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지하철 출퇴근자 열독율 3위(조선, 중앙)
→ 2013년 2월 한국리서치 무료신문 열독율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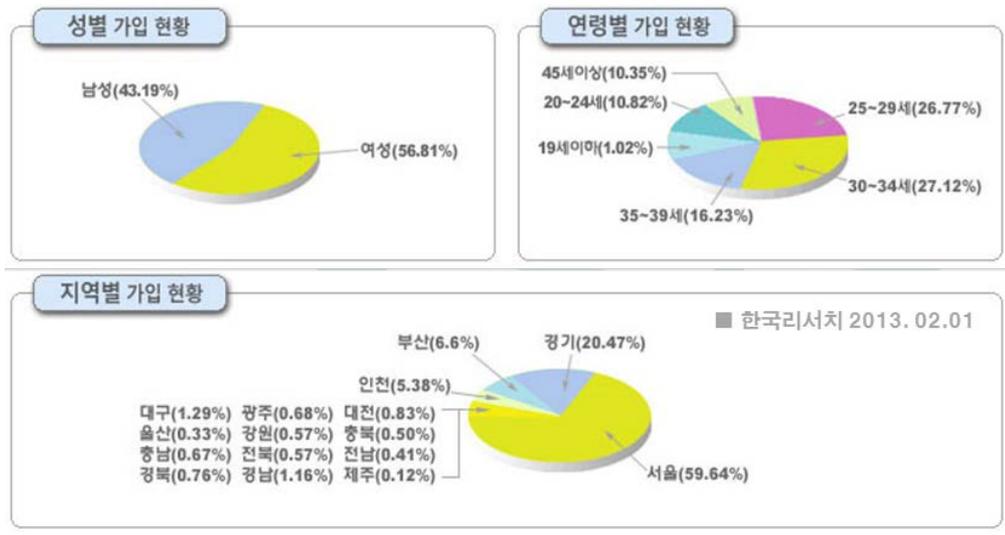
일 독자 전국 약 54만명 / 서울 약 50만명
→ Media index 2012년 3/4분기

발행부수, 전국 종합지 6위 / 무료신문 1위
→ 2012년 10~12월 ABC협회 보고서

전국 대학생 이구동성 부동의 1위
→ 2012년 10월 한국대학신문 전국주요대학생 조사



- | 업계 최초 해상도 반응형 홈페이지 적용
- | 실시간에 기사 업데이트에 맞춘 UI 구성
- | 일 300건 기사 생산 / 일 평균 방문자 10만
- | 일 평균 15만 페이지뷰 이상
- | 고객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이벤트 진행
- | 지속적인 온라인 브랜드 인지도 상승
- | 20~60대 남녀노소 방문자(현재 회원 26만명)



The screenshot shows the Metro Seoul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메트로투데이' and '해외주말 7%'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the number '1'. To the right, '자민그룹'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the number '2'. In the middle section, a 'KATA' banner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the number '3'. At the bottom left, a large banner for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제왕! 4대유니버시아드가'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the number '4'. The website content includes news articles, a 'Hot Issue' section, and various category-specific banners.

1. 메인 탑 배너

사이즈	350 * 75 / 300k		
노출	Rolling	CPM	3,000

2. 메인 탑 우측 배너

사이즈	200 * 77 / 300k		
노출	Rolling	CPM	2,500

3. 메인 중앙 배너

사이즈	300 * 170 / 300k		
노출	Rolling	CPM	4,000

4. 메인 좌측 하단 배너

사이즈	658 * 130 / 300k		
노출	Rolling	CPM	1,500

The screenshot shows the metro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menus and a search bar. Below, there are several news articles and advertisements. Four red circles are overlaid on the page to indicate specific banner ad placements:

- 1:** Located at the top center, above a news article titled '성적 수직상승, '서울대생 공부법'에 영어업계 초배상!'. It features a '50%' discount tag and the text '인전'.
- 2:** Located at the top right, above a news article titled '사람어거기'. It features a '1세이' tag and the text '세계유명'.
- 3:** Located in the middle section, above a Sony advertisement for 'SONY' cameras. It features a '3' tag and the text '동영상'.
- 4:** Located in the middle section, above a KATA advertisement for '우수여행사'. It features a '4' tag and the text 'KATA'.

1. 기사부 탑 배너

사이즈	350 * 75 / 300k		
노출	Rolling	CPM	4,000

2. 기사 탑 우측 배너

사이즈	200 * 77 / 300k		
노출	Rolling	CPM	3,000

3. 기사부 중앙 배너

사이즈	250 * 250 / 300k		
노출	Rolling	CPM	5,000

4. 기사부 중앙 하단 배너

사이즈	250 * 150 / 300k		
노출	Rolling	CPM	3,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41 메트로신문사
뉴미디어국 김재현 부장
TEL 02-721-9858 / Mobile 010-6423-5821